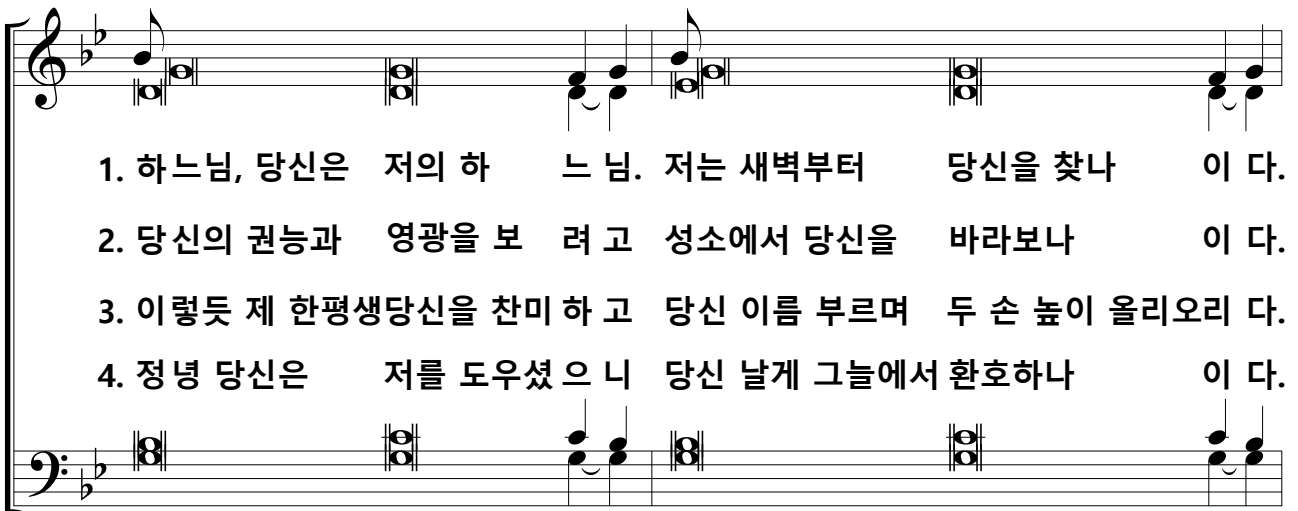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22 주일 화답송 [가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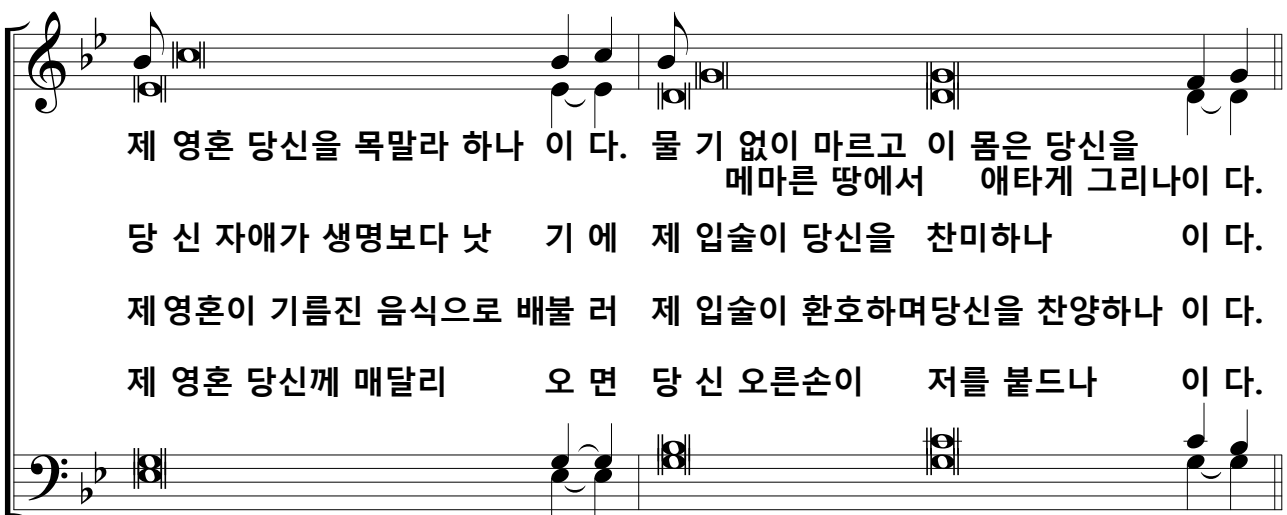
시편 63(62), 2. 3-4. 5-6. 8-9



(후렴) 주 -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- 하 나 이 다.



1. 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 느 님.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 이 다.
 2.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 려 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 이 다.
 3. 이렇듯 제 한평생당신을 찬미 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 다.
 4.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 으 니 당신 날게 그늘에서 환호하나 이 다.



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 이 다. 물 기 없이 마르고 이 몸은 당신을
 메마른 땅에서 애타게 그리나 이 다.
 당 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 기 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 이 다.
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 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당신을 찬양하나 이 다.
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 오 면 당 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 이 다.